

‘불량 제로’ 실현하는 산업용 X-ray 검사기

불량품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라도 돌발 상황이나 부주의 등으로 불량품이 생길 가능성이 있게 마련.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불량품을 검사하는 장비다. 불량품을 검사하는 검사기의 성능은 불량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그래서 (주)자비스(대표 김형철, www.xavis.co.kr) 산업용 X-ray 검사기를 사용하는 고객사의 만족도는 높다. X-ray를 통해 정확하게 불량과 이물질을 잡아내는 기술력, 이것이 (주)자비스가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다.

글_ 정유경 · 사진_ 장병국





“불량을 잡는 검사기는 반드시 완벽해야 합니다. 완벽한 검사를 하기 위해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불량, 이물질 꼼짝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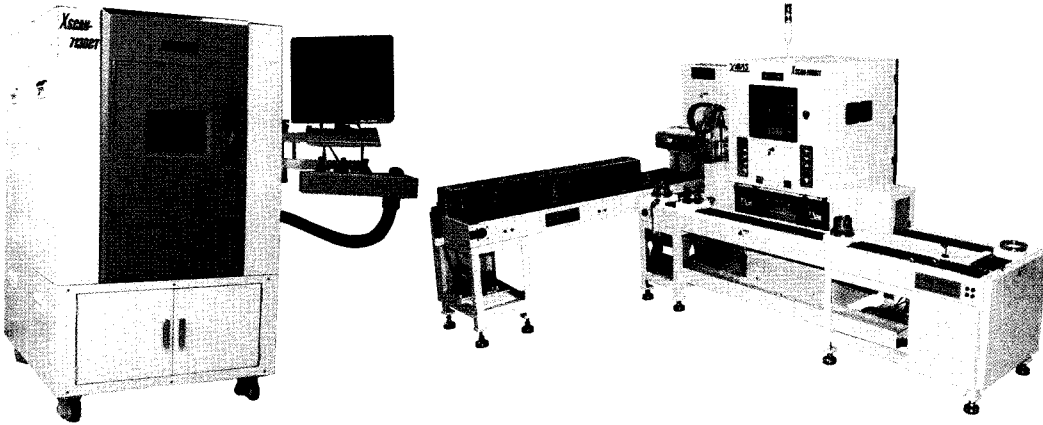
이물질이 절대 들어가는 안 되는 식품, 내부가 보이지 않는 주물과 다이캐스팅, 정교함이 생명인 납땀 제품, 배터리 및 부품 등이 (주)자비스의 산업용 X-ray 검사기가 사용되는 분야다. 2002년 4월 설립된 자비스는 삼성전자연구소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동화 시스템 설계 기술을 익힌 김형철 대표가 세운 벤처기업이다. 주로 X-ray를 이용한 산업용 검사기를 제조·판매한다. 최근까지 논란이 끝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뺏조각을 검출한 검역기기가 바로 자비스의 제품이다.

설립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업계에서 자비스 산업용 X-ray의 성능은 유명하다. 국내 최초로 산업용 컴퓨터 단층촬영(CT) 장비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고, 배터리 전용 자동검사기 등은 360도 회전 동영상을 제공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검사하는 신기술 장비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식품 이물질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CJ, 동서식품, 대상 등 대기업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 도전 끝에 싹튼 성장의 씨앗

회사를 설립하고 짧은 시간 안에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김형철 대표는 “우리 국산 기술은 검증받지 못해 영업과 수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발로 뛰면서 외국산 검사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자동화 기술과 완벽한 검사력을 구현하는 일이 반복되자 자비스의 검사기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며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

“불량을 잡는 검사기는 반드시 완벽해야 합니다. 완벽한 검사를 하기 위해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술 발전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독일, 일본 등에서 온 수입품이 주를 이뤘던 검사기 시장에 자비스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회만 준다면 검사기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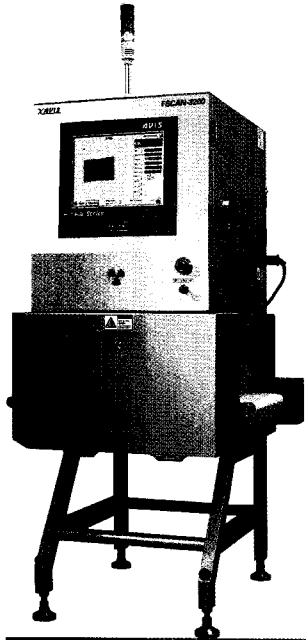
“우리 국산 기술은 검증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발로 뛰면서 외국산 검사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자동화 기술과 완벽한 검사력을 구현하는 일이 반복되자 자비스의 검사기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자비스의 자신 있는 영업력도 인정을 받는 데 한몫 했다. 그 후 자비스의 검사기 시장 점유율은 점차 상승곡선을 그렸고, 국내 산업용 X-ray 검사기 분야의 전문기업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특히 쉬지 않고 구동되고, 불량없는 제품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기의 특성상 A/S도 기술력이라는 생각으로 장비마다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부착해 365일 24시간 A/S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이처럼 기술은 물론 사후서비스까지 출중한 자비스는 고객사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재구매를 이끌어 내고 있다.

— 세계 일류 기업을 향해 순항 중

자비스의 산업용 X-ray 검사기의 기술력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 인도, 중국, 유럽 등 20여 개의 해외 대리점 운영이 이를 증명한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현지에서 A/S까지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아 검사기가 필요한 각국의 기업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의 산업용 X-ray 검사기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그들에게서 검사기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자비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잊지 않는다. 김형철 대표는 “시장 개척단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직원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세계 각국을 자비스의 잠재시장으로 여기고 자신의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지금도 자비스의 직원은 전 세계를 누비는 중이다. 작년 7월에는 투자조건이 까다롭기도 유명한 글로벌 벤처캐피털 기업인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알파인기술투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6년 성남중소벤처기업 대상, 2007년 X-ray 이용 증진 관련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2008년 수출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등 성장 가능성을 알리는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비스. 고객사의 제품에서 미세한 흠집과 이물질을 잡아내 더욱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세계 최고의 산업용 X-ray 검사기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그들에게서 검사기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주)자비스 김형철 대표

01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성장을 이루셨다고 판단됩니다. 비결이 궁금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근무하는 직원들 덕분에 계속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산업용 X-ray 검사기는 고객사 제품에 맞게 주문 생산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완료해야 할 때가 잦은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니 납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02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처음 시작을 경기대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경영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아는 것이라곤 기술밖에 없는 상태에서 회계, 마케팅, 관리 분야 맞춤 교육을 받고 많이 배웠죠. 이곳 성남으로 이사 온 뒤에도 성남시에서 사업장 공간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 자비스를 경영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많이 늘어 있는 직원들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많은 노력 끝에 갖춘 실력일 테니까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도 들고요.

04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글로벌 사업에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세계 곳곳에 지사도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용 X-ray 검사기 최고 기업이 될 때까지 자비스는 기술 개발을 쉬지 않으며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